

2017년 5월 17일, 조천읍 와흠리 임완송 씨 덕, 강수경 조사.

임완송(남, 1933년생, 조천읍 와흠리)

- 줄거리: 와흠리의 옛 지명은 '논흠'이다. 이웃 마을인 대흠리의 옛 지명은 한흠이다. 와흠리에 강두식이라는 사람이 살았다. 하루는 폭나무 있는 사거리에 앉아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이 한흠은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. 그러자 강두식 씨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여기로 쪽 올라가면 하늘이라고 하였던 우스갯소리가 있다.

[조사자] 여기는 논흠?

[제보자] 논흠. 지금은 와흠인데, 그때는 논흠. 논흠인데 또 기억도, 그 논흠 중에. 그전에 예. 그것이 흠 이삼십 년 거이 텬습니다만은, 어떤 분이 여기 폭남 잇는 사거리 잇지 않습니까?

[조사자] 예.

[제보자] 여기 들어오는데, 어떤 사람이 넘어가다가 그 폭남 잇는 사거리에서 와흠에 강두식 씨라는 분을 만났는데, 나보다 하나 원데. 그 강두식 씨보고 하는 말이 똥고 허게 똥은,

“저, 나 말 좀 물으쿠다예.”

젠,

“예, 무사마썸?”

“한흠 어떻, 어디로 갑니까?”

그렇게 허니까, 그 강두식 씨가 허는 말이

“한흠은예, 일로 영 구작 (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킴) 올라가민 한흠, 한흠. (웃음).”

[조사자] (웃음)

[제보자] 경 행 노니까 그 물은 말은 똥고 허게 똥은,

“헤에 그것사 모릅니까게.”

“무사 잘 알면서 그렇게 물어봅니까.”

이렇게 헤난 그 아주 재미난 농담거리, 전설에 남아 있습니다. 전설.

[조사자] 진짜 전설인게마씨.

[제보자] 우리 어린 때 신촌 살 때 한흠 한흠 허민 아이고, 하늘이여 하늘, 하늘로만 알앗 주. 똥을 생각을 안 허연.

- 핵심어 : 한흠, 하늘, 논흠, 강두식, 와흠리, 대흠리